

나주시, 골칫거리 ‘미나리 꼬시락병’ 해법 찾았다

유용 미생물·친환경 자재 시범 살포...피해 80% 감소 내년 타 작물까지 확대 보급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나주시가 가을 수확기 논미나리에서 발생하는 질병인 일명 ‘꼬시락병’ 피해 예방 해법을 유용 미생물에서 찾아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나주시농업기술센터서 노안면 미나리 재배 농가 2곳을 선정해 유용 미생물을 포장에 살포한 결과 꼬시락병 피해 발생률이 최대 80%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 노안면은 서울 가락농수산도매시장 겨울철 미나리 출하 물량의 70%를 점유하는 전국 최대 미나리 주산지다.

나주 미나리는 노안 학산리를 중심으로 전체 40농가 약 79만평(265ha)에서 한 해 평균 3200여t을 생산하며 연 매출 150억원에 달하는 효자 농산물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미나리 재배 농가는 미나리 꼬시락병으로 매년 전체 생산량의 약 20%가 감소하는 등 고충을 겪어왔다.

꼬시락병은 잎이 물러지면서 갈색으로 변질되고

스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가정 병명이다. 기온 낙차가 큰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약해진 잎의 상처로 균이 퍼져 전 포장으로 번지게 되면 수확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꼬시락병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법이 없어 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미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는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부터 노안면 미나리 농가 2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자체 개발한 유용 미생물 5종과 친환경 자재를 토양 및 엽면살포해 꼬시락병 피해 발생률을 전년 대비 70~80%가량 감소시켰다.

유용 미생물을 적용한 농가주 신모씨는 “다른 포장에는 이미 꼬시락병이 퍼지고 있는데 미생물과 친환경자재를 살포한 포장엔 피해가 많이 감소했다”며 “매년 꼬시락병으로 인해 피해가 컸는데 기술이 실용화되면 한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 미나리 재배 농가들이 노안면 학산리 미나리밭에서 미나리 수확에 한창이다. <나주시 제공>

한편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올 상반기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 멜론 연작지에 피해를 주는 토양 뿌리혹선충 경감은 물론 시범적으로 멜론을 4작기까지 늘려 농가소득 증가에 이바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토양에 살포한 유용 미생물이 작물 생육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미생물과 친한

경자제 엽면 살포를 통해 꼬시락병 예방 효과를 검증했다”며 “내년 확대 보급을 통해 전체 미나리 농가 피해를 막고 타 작물에도 폭넓게 적용해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멸종위기 생물 그리기 성료 함평군, 20일부터 전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그림으로 담은 대회가 열렸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자연생태공원 체험장에서 열린 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4번째 개최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림그리기 대회는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환경 의식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를 살리기-자신을 구하자”(SAVE EARTH, SAVE YOURSELF)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693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함평교육지원청의 교사와 장학사들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개 부문에서 134명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은 삼호고등학교 1학년 김은진양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 수상 작품은 오는 20일부터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홍보관 및 야외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 산림공원과(061-320-2865)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옥상정원’ 갖춘 담양시장 내년 봄 만나요

3층 규모 재건축 내년 3~4월 개장 점포·먹거리 장터·편의시설·주차장 관광지 연계 문화관광형 시장 기대 입점 상가 모집 설명회 24일 개최

담양시장에 내년 상반기 옥상정원을 갖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루프탑가든형 시장’이 들어선다.

담양시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오일시장(2일·7일)이다.

이곳 인근에는 지난 2020년 연면적 6213.94㎡(1880평) 규모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공사’가 추진돼왔다.

담양군은 준공하는 내년 3~4월께 개방형 옥상 가든형 담양시장 문을 열 예정이다.

담양시장 재건축공사에는 국비 13억원·도비 61억원·군비 98억600만원 등 172억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담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식 전통시장을 꾸린 군산시장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상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문을 열 담양시장은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 상가’이다.

점포 44곳과 먹거리 장터 8곳, 휴게·편의시설 2곳 등 54개 실을 갖췄다. 64면 규모 주차장도 건립한다.

1층에는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 점포 40여 개를 들인다. 2·3층에는 먹거리 장터와 카페 등 8개 점포가 들어선다.

담양군은 인근 관광 명소인 죽녹원과 국수의 거리, 담주 다미담예술구 등과 연계해 담양시장이 문화관광



담양을 담주리 담양시장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개방형 옥상 정원을 갖춘 ‘루프탑가든형 시장’이 내년 3월께 문을 연다. 이달 초 촬영한 담양시장 재건축 현장. <담양군 제공>

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양시장은 지난 2019년 재건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인 뒤 5년 만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재건축공사 총괄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뒤 지난해 1·2차분을 준공했다.

내년 3월을 건축 3차분 준공 목표로 정했으며, 준공 한 달 전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담양군은 내년 새로 문을 열 담양시장의 입점 상가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24일 담빛농업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재건축한 담양시장에는 농축산물, 공산품, 식당, 카페 등 50여 개 상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담양군은 상가 입주 조건과 판매 품목, 상가 운영 전반을 소개한다.

다음 달에는 입점 상가 모집 공고를 낸 뒤 심사·선발을 마칠 계획이다. 내년 2~3월에는 입점 상가의 개별적인 설치를 마친다.

담양군은 앞으로 상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시장 내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전문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지난 6월 강진군 야생동식물관리연합회원들이 멧돼지 퇴치를 하고 난 모습. <강진군 제공>

“멧돼지 퇴치” 보은산 20일 저녁 입산 통제

강진군이 오는 2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보은산 일대에서 멧돼지 퇴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보은산 출입이 통제된다.

이달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멧돼지 번식기이다. 짝짓기와 봄철 출산을 앞두고 먹이 활동이 왕성하다.

강진군은 입산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하기 전에 퇴치 활동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멧돼지 퇴치는 이 기간 보은산 고성사 가는 길 등에서 진행된다.

강진군 야생동식물관리연합회 회원들이 활동하며, 보은산 입구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강군은 지난해 9월부터 보은산 산책로 주변에서 멧돼지 퇴치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는 2월 총기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냥개와 총기를 활용한 퇴치 활동을 6월과 9월에 벌여 멧돼지 6마리를 포획했다.

전재영 강진군 환경축산과장은 “올해 마지막 멧돼지 퇴치 활동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변 주민들은 20일 저녁부터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세지농협멜론공선회·알곡영농조합 ‘대통령 표창’

농업유통·식량산업발전 분야

나주 세지농협 멜론공선회와 알곡영농조합 법인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농업유통분야 표창을 수상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는 1996년에 결성돼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0여 농가에서 연평균 약 3200t을 생산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지멜론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공선시스템에 있다. 공선회원들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정산 시스템으로 멜론 품질을 균일화하는 데 힘써왔다.

농산물 GAP인증을 비롯한 우수 품종 발굴, 품종 규제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의 멜론을 유통했으며 지난해 3196톤 규모 멜론을 생산, 매출액 191억원을 달성했다.

2012년 결성된 세지면 소재 알곡영농조합법인은 식량산업발전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80여명의 발농가 회원이 공동경영체 시스템을 도입해 62ha에서 콩, 팥, 유채 등 식량작물 품질 균



윤병태 나주시장이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지농협 멜론공선회,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수 세지농협전무, 최정웅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병태 시장, 이상수 세지농협조합장, 김병오 세지농협멜론공선회회장. <나주시 제공>

일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왔으며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1년엔 나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Non-GMO(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채유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 분야 최고 상훈을 수상한 세지농협 멜론공선회, 알곡영농조합법인 회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대통령 표창을 통해 나주농업 브랜드의 위상과 자부심, 농업 우수성을 드높여준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 ‘품앗이’ 함평 나비골농협(조합장 김영철·왼쪽)과 화순농협(조합장 조준성·오른쪽)이 최근 함평군(군수 이상익·가운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두 조합 임직원들은 서로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농협 함평군지부 제공>

장성군 남면문화센터 개소 ‘주민 소통의 장’ 기대

커뮤니티 광장·교류마당 등 갖춰

장성군 남면 죽분저수지 인근(분항리 619-2)에 지상 2층 규모 남면문화센터가 지난 14일 문을 열었다.

남면문화센터는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하나로 건립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건립 사업을 위탁해 추진했다.

사업비 40여원을 들였으며, 공사를 지난해 9월 시작한 뒤 올해 11월 마쳤다.

지상 2층 규모 건물 주변에는 교류마당과 커뮤니티

광장 등이 들어섰다.

커뮤니티 광장은 6720㎡(2000평) 규모로,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주민 모임, 여가생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47면 규모 주차장과 쉼터, 정원, 다목적마당 등도 갖췄다.

교류마당은 잔디마당과 주차장, 야외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문화센터 건물 내부는 다목적강당과 건강관리실, 동아리실, 샤워실, 야외테라스 등으로 구성됐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